“백제 여행은 마치 연애 같아요”

여행학교 ‘로드스꼴라’ 9명 학생들이 엮어낸, 백제 역사여행기

하룻밤의 지상낙원 보다, 더 깊고 진한 여운이 담긴 여행서적 ‘백제의 길, 백제의 향기’

여행서적은 여행서적인데, 여느 여행서적과는 좀 다르다. 특히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다 일탈을 꿈꾸며 여행서적을 뒤적거리는 독자라면 좀 놀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꿈꾸는 에메랄드 빛 푸른 바다와 산호초, 만년설에 비치는 호수, 넓은 평야에 뛰노는 얼룩말과 기린, 진기한 음식들, 화려한 풀 빌라 등은 책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목적으로

여행서적을 찾는 이들에겐 책은 기피대상 1순위다.

좀 놀랍겠지만 오히려 영어, 수학, 과학 등에는 능한데 국사에는 전혀 관심 없는 아이, 공부는 뒷전이고 매일 밤을 새며 게임만 하는 아이, 주입식 교육이 맞지 않는 아이, 꿈이 없는 아이들과 이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책은 여행 전문 작가나, 순례길을 떠난 순례자들이 쓴 여행서적이 아니다. 여행학교 ‘로드스꼴라’의 9명 학생들과 그들의 지도교사가 함께 쓴 여행 이야기다. 여행이 사람들에게 점차 일반적인 문화생활로 자리 잡아 가면서, 최근에는 한 테마를 설정해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들도 한 테마를 정해 여행길에 오르는데, 그 테마는 바로 ‘백제’다.

학창시절 국사 교과서에서 잠깐 등장하는 백제를 주제로 여행을 떠난다니, 말만 들어도 고리타분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책장을 넘기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어렵고 진부하게만 느껴졌던 역사 내용을 현대 아이들의 시각으로 상큼하고 발랄하면서 솔직하게 재현했다. 책은 역사를 잘 모르는 학생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쉽게 읽도록 구성돼 있다.

책에는 백제를 주제로 역사여행을 떠난다는 선생님들의 말에 학생들이 “차라리, 조선이면 조선이지, 백제는 또 뭐냐!”고 소리치는 모습 등, 정작 글을 쓰고 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조차도 낯설어하던 백제의 이야기들이 솔직하게 담겨 있다. 이들은 2009년 가을과 2010년 여름 두 차례에 걸쳐 백제의 길을 따라 나섰다. 그들이 찾아다닌 백제의 길은 한국의 서울 공주 부여 정읍 서산 익산부터 일본의 아스카 나라 오사카 교토로 이어진다. 학생들과 교사는 모두 열 군데에 이르는 도시를 저마다 한 곳씩 나눠 맡아 글을 썼다. 그들은 백제 여행길에 오르기 전 관련 도서 70여 권과 백제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상물들을 찾아보고,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듣는 등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곤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백제의 숨결을 하나씩 더듬어 가며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직접 현장

을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긴 내용을 하나하나 글로 기록해 나가면서 백제의 길에서 배우고, 놀고, 연대하며, 사방에 만연한 백제의 향기에 흠뻑 취한다.

“이상하게 백제를 바라보는데 내 모습이 비친다. 거울처럼. 백제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책을 뒤지고 배낭을 메고 길을 찾아 헤맸지만, 역설적이게도 내가 찾은 건 나와 우리, 그리고 이 사회와 시스템이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과거들을 그저 나열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내 얘기다. 그래서 역사는 재밌다.”

학생들은 700년의 백제 흥망사를 말하기 위해 한 장소에서 오래도록 서성이면서 역사 기록이 빠뜨린 지점을 상상 속에서 메워보고, 아무 것도 없는 유적지에 홀로 앉아 백제의 숨결을 느끼며 숙소에서, 교실에서 삼삼오오 둘러앉아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했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마치 연애 같았다고 말한다.

여행은 단순히 지상낙원에서의 즐거운 하룻밤이 아니다. 여행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창이지만, 그 이면에는 조심스럽게 살펴보지 않으면 모를 심각한 문제들도 가득하다. 책은 ‘로드스꼴라’ 9명의 학생들이 백제의 길에서 얻은 지식과 감상을 바탕으로 성찰과 지혜, 비판적 시각을 함께 드러냈다는 점에서 더 값어치 있다.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법이 함께 그려져 더욱 신선하다.

백제의 길, 백제의 향기 | 로드스꼴라 학생과 선생 지음 | 호미 | 1만5000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 30~4. 5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천태소지관	천태 지자대사	운주사
3	붓다의 치명적 농담	한형조	문학동네
4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5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6	선방일기	지허	불광출판사
7	행복한 기원	보경	조화로운삶
8	입보리행론	산티데바	하얀연꽃
9	건널강이 어디있으랴	대행	한마음
10	백일법문(상)	성철	장경각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천수를 친다’는 ‘천수경’과 달라

‘천수경’에 대한 잘못된 상식 깨기… ‘천수경, 의궤로 읽다’

〈천수경〉은 불교 신자들이 가장 많이 염송하는 경전이다. 또한 국내의 여러 의례에서 널리 쓰이는 의례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저자는 불자들에게 널리 읽혀지는 〈천수경〉이 너무 오독이 많이 돼 있다고 주장하며, 의궤를 추적해 〈천수경〉 내용들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헤치고 있다.

흔히 불교계에서 ‘천수를 친다’라는 표현은 〈천수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천수’라는 말은 현재 한국불교에서 널리 읽히는 ‘신묘장구다라니’를 지칭한다. 또한 가치를 구하는 ‘나무’와 수계와 서원이라는 ‘귀의’역시, 그 의미가 서로 다르지만 많은 본에서 ‘나무’를 ‘귀의’로 번역한다. 이처럼 저자는 “경전은 원전의 자료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문장에 쓰인 단어를 잘못 해석하거나 글의 문맥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오역하기 쉽다”고 말한다.

저자는 우선 기존의 〈천수경〉 해설서들이 일반적으로 〈천수경〉은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고 입장을 취하는데 반해, 〈천수경〉의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적층됐고, 의궤라는 시공간 속에서 형성됐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삼는다. 이러한 역사적 사료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시중에 유통 중인 많은 〈천수경〉 판본과 해설서 들을 통해 그릇된 해석을 서로 비교하며 짚어보고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밖에도 〈천수경〉에 관한 문학적인 방법론을 통한 해석과 진언을 문법적으로 분석해 어떻게 표기 방식이 변화됐는지를 살피고, 현대에 맞는 진언 표기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한다. 책은 불교의궤의 전모를 엿보게 한다.

천수경, 의궤로 읽다 | 이성운 지음 | 정우서적 | 1만원 이은정 기자

윤남진 특별기고 / ‘입보리 행론’, ‘중관의 열쇠’

“佛法 만나거든 사유통해 분석하라”

어느 날 초등학교 딸아이가 영어 평가대회에 나간다고 해, 시험장에 따라가게 됐다. 시험장에 아이를 입장시키고 기다리는 동안 시간을 달랠 겸 인근의 절을 찾았다. 법당에 들려 참배를 하고 나오는 길에 현관에 법보시용으로 꽂혀 있던 월간지 한 권을 발견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달라이라마의 신년법회 법문’이 실려 있었다. 우연찮게 지상법문을 접하게 된 나는 이후 산티데바가 지은 〈입보리행론〉과 달라이라마가 지은 〈중관의 열쇠〉를 연이어 구해 읽었다.

“불법은 이치를 바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혜의 눈은 경전 바탕이 아닌 이치로서 키워야 합니다. 현대과학과 불교의 교차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이 틀림없이 올바른 것이라 믿었다.

“비구들과 혹은 현명한 이들은 녹이고, 자르고, 문지르는 금 같이 나의 말을 바르게 분석해라. 취할 바이지 존경해서는 아니다.”(중관의 열쇠 본문)

내가 이 법문을 접할 당시는 실업급여를 받는 처지였고, 번거로운 세상살이에 번뇌가 왕성할 시기였다. 법문은 나를 다시 제자리로 가져다 놓았다.

“불법을 대할 때는 반드시 사유를 해서 이치에 맞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아비달마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야 할 것이며, 가르침에 의지하지 말고 의미에 의지하며, 상대적인 의미에 의지하지 말고 지혜에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목은 〈현관장엄론〉에서 말하는 의지처(依支處)를 인용한 것이다. 이것은 ‘법에 의지하고, 이것 또한 듣기 좋은 말 정도에 의지하지 말고 의미에 의지하며, 의미에도 불요의(不了義)에 의지하지 말고 요의(了義)에 의지하며, 이 요의(了義) 또한 식(識)에 의지하지 말고 무분별지에 의지하라’는 내용이다. 이어 달라이라마의 법문은 〈입보리행론〉으로 넘어간다.

“보리심은 모든 악업을 극복하는 명약입니다. 죽음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입보리행론〉으로서 보리심에 익숙해지십시오. 스님의 특별한 도움 없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 바탕에는 강렬한 보리심이 있어야 합니다.”

보리행이 무엇이고, 보리행에 들어가는 길은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한다면, 이제 곧바로 〈입보리행론〉이라는 경전을 사서 투철하게 읽어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될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입보리행론〉을 사서 읽는다면 산티데바가 말한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아마도 나처럼 너무나 부끄러워 몸 둘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전에 부처님이 설하시지 않은 것을 여기에 말한 것은 없으며 저에게는 능숙한 문장력도 없으니 따라서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생각보다 단지 제 마음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 이것을 짓나이다.”(입보리행론 본문)

이치로 이해했으면 익숙해지게 함으로써 체험하고 터득해야 한다는 것, 죽기 직전까지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따스하고 행복한 봄날이다.

스님!
10년 후에도 우리 절의 미래는 밝습니다.
사찰 경제의 안정은 도량을 보전하고 가꾸어 가는 바탕입니다.
지금, 전국의 스님들께서 법륜대와 함께 사찰 경제를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법륜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사찰◈
법정사 부산
기룡사 경북
조주선관 강원
용운사 경북
육화사 경북
극락사 경기
성암사 경기
대원사 경기
무애사 부산
대관음사 대구
불암사 부산
성불사 서울
금선사 서울
미암사 충남
배과사 강남
봉화사 경북
무상사 경기
대원사 경남
용문사 경남
흥안사 경기
안심정사 충남
청암사 전남
보경사 경기
반야정사 진주
대승암 경남
광명사 경기
청용사 경기
무심사 경남
응공사 대구
동경사 울산
용관사 경남
길상사 충남
백봉사 경북
천지암 경남
용화사 부산
백연사 부산
현각사 경남
연송암 충북
극락사 경북
보광사 서울
여래사 서울
덕천사 남원
삼학사 경북
구룡암 서울
약사암 충남
지장암 서울
정암사 부산
상원사 서울
약사사 경기
법성사 부산
수곡사 부산
반야암 하동
도원사 경남
홍덕암 경기
견불사 서울
지장사 부산
문수사 부산
용화사 충북
불로정사 경북
해송사 부산
율림원 경기
건봉사 부산
법륜사 경기
고선사 정읍
심원사 광주
한승사 전남
화심사 경북
약수사 울산
관음사 부산
금성사 서울
도솔사 서울
독성암 서울
천궁사 마산
광음사 서울
연화사 부산
소원정사 경남
어울락 경남
명성암 정읍
고선사 경기
원당사 광주
미륵사 경남
부심사 부산
정각사 부산
보은정사 부산
용화사 경북
약수사 부산
보광암 경주
금강사 부산
성주암 부산
무아사 청주
문수암 부산
보광선원 부산
관음사 충북
지선사 울산
약수사 부산
태현사 광주
미륵사 광주
광산불원 서울
대법사 부산
황룡사 김해
복천사 부산
태광암 부산
묘법사 마산
대선사 경남
보문사 경남
비로사 경북
소우선원 경북
약수암 경남
약명사 부산
진영표교당 경남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빚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신도들의 귀한 소망을 한데 모아 발원하는 법륜대입니다.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 품 명 : 순금 상감청자 법륜대
· 높 이 : 120cm
· 원통폭 : 45cm
· 밑바닥폭 : 30cm
· 무 게 : 25kg
사월 초파일 전에는 기간 특성상 한정수량만이 보급 가능하오니 미리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감사합니다. 항상 친절하겠습니다.
055)941-1083 HP)010-4595-0017 덕유산 청다향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